

2019년 4월 3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FOMC 앞두고 제한적인 상승 핵심 PCE 가격지수 전년 대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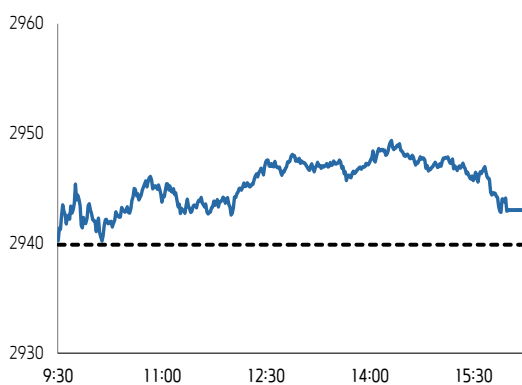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금융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요인. 다만, FOMC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상승이 제한(다우 +0.04%, 나스닥 +0.19%, S&P500 +0.11%, 러셀 2000 +0.41%)

미국 3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해 지난달 발표치(mom +0.1%)는 물론 예상치(mom +0.7%)를 상회.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이 0.6% 감소하며 미국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었었음. 그러나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mom +0.3%→0.1%→0.9%) 하며 관련 우려 완화. 한편,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1%에 그쳐 예상 하회. 더 나아가 연준이 주목하는 핵심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6%로 지난달보다 0.1%p 하향 조정되는 등 인플레이 압력도 약화. 이 지표 결과가 알려지자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임. 한편, 스페인 총선에서 시장이 우려와 달리 반 EU 정당의 지지율이 약했다는 점. 므누신 미 재 무장관이 미·중 간의 무역협상은 수주일 내 완료 될 것이라고 주장 한 점도 달러화 약세 요인 중 하나.

그러나 미국 상품선물 거래 위원회가 지난 주 달러 롱 포지션이 2015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달러화는 강제 요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5월 1일 FOMC 결과에 따른 달러화 변화에 주목. 시장은 이번 FOMC에서 어떤 주요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파월 연준의 발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극단적으로 분석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 오늘 주식시장 또한 이에 대한 우려속에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경향이 짙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16.43	+1.70	홍콩항셱	29,892.81	+0.97
KOSDAQ	750.60	+1.30	영국	7,440.66	+0.17
DOW	26,554.39	+0.04	독일	12,328.02	+0.10
NASDAQ	8,161.85	+0.19	프랑스	5,580.98	+0.21
S&P 500	2,943.03	+0.11	스페인	9,517.20	+0.12
상하이종합	3,062.50	-0.77	그리스	772.74	+0.01
일본	22,258.73	휴장	이탈리아	21,788.54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강세

JP모건(+1.44%), BOA(+1.38%), 씨티그룹(+2.19%)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상승했다. 반면, 리얼티 인컴(-1.53%), SPG(-1.60%) 등 리츠금융회사들과 듀크에너지(-0.82%), PPL(-0.68%) 등 유틸리티 업종은 부진했다. 한편, 아마존(-0.63%)은 프라임 고객들에게 1일 배송을 발표했다, 우체국 택배는 이미 1일 배송을 보이고 있고, 페덱스(+1.41%)와 UPS(+0.86%)도 1일 배송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물류 회사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영향으로 아마존은 매출이 출회되고 물류회사들은 반등에 성공했다.

인텔(-2.52%)은 다이와 증권등이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하향 조정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애플(+0.15%)과 지난해 여름부터 5G 모뎀 사업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했으나 최근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부담이 되었다. 마이크론(+0.02%), 브로드컴(+0.74%) 등 반도체 업종은 인텔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며 상승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1.47%)은 매출 부진 발표 여파로 시간 외로 6% 넘게 하락 중이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3%	대형 가치주 ETF(IVE)	+0.25%
에너지섹터 ETF(OIH)	-0.52%	중형 가치주 ETF(IWS)	-0.02%
소매업체 ETF(XRT)	+0.24%	소형 가치주 ETF(IWN)	+0.50%
금융섹터 ETF(XLF)	+1.01%	대형 성장주 ETF(VUG)	+0.07%
기술섹터 ETF(XLK)	+0.03%	중형 성장주 ETF(IWP)	-0.0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48%	소형 성장주 ETF(IWO)	+0.44%
인터넷업체 ETF(FDN)	+0.70%	배당주 ETF(DVY)	-0.04%
리츠업체 ETF(XLRE)	-1.0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4%
주택건설업체 ETF(XHB)	+0.6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7%
바이오섹터 ETF(IBB)	-0.08%	미국 국채 ETF(IEF)	-0.21%
헬스케어 ETF(XLV)	-0.18%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62%	물가연동채 ETF(TIP)	-0.28%
반도체 ETF(SMH)	-0.53%	Long/short ETF(BTAL)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9.24	-0.25%	-3.52%	-0.04%
소재	356.71	-0.18%	-0.79%	+2.72%
산업재	654.68	+0.27%	-0.44%	+3.53%
경기소비재	954.06	-0.35%	+1.29%	+5.87%
필수소비재	586.44	+0.09%	+0.22%	+1.09%
헬스케어	1,027.85	-0.21%	+3.38%	-3.26%
금융	464.22	+0.93%	+2.59%	+8.67%
IT	1,378.82	-0.01%	+0.76%	+6.13%
커뮤니케이션	171.89	+0.85%	+2.82%	+9.01%
유틸리티	292.85	-0.63%	+0.87%	-0.78%
부동산	220.45	-1.06%	+1.33%	-1.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관망 속에 장 후반 매물 출회 우려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4% MSCI 신흥 지수 ETF 도 0.2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327 계약) 여파로 0.35pt 하락한 287.3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8.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 상승 요인은 ①견고한 미국 소비지출 증가 ② 므누신 재무장관의 미·중 무역협상 관련 낙관적인 발언 ③ 전월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제조업 PMI ④미 증시에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이 있다. 반면, 하락 요인으로는 ①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② FOMC 이후 달러화 강세 가능성 ③ 중국 증시는 변동성 확대 ④ 시간 외 6% 넘게 급락 중인 알파벳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월 1 일 있을 미 연준의 FOMC,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한국 수출입 통계, 애플 실적 발표 등 주요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증가

3 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1% 증가해 예상(mom +0.4%)을 하회했다. 그러나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해 예상치(mom +0.7%)를 상회했다. 한편,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쳐 예상치를 하회했다.

셋다운으로 발표가 미뤄졌던 2 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 했으며,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 했다.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1.7%를 기록해 예상치(yoy +1.8%)를 하회했다.

4 월 달라스 제조업 활동지수는 전월(6.9)이나 예상치(9.8)을 하회한 2.0 에 그쳤다. 생산지수는 전월(10.5) 보다 상승한 12.4 를 기록했고, 설비 가동률도 전월(9.4) 보다 개선된 15.6 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고용지수(12.2→4.6), 가격지불지수(18.9→7.9) 등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위험자산 강세

국제유가는 트럼프 발언 파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이란과 미국 고위급 군 장성들 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격양된 발언이 있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공급이슈가 이어지며 상승했다면, 이제는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가솔린 가격 등 수요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 기반한다면 관련 이슈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돼 국제유가 상승이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스페인 총선 결과에 안도하며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점, 미국 인플레이 압력이 약화되자 여타 환율에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갔다.

국채금리는 개인 소비지출이 3 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견고한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스페인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며 유럽발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 관련 낙관적인 내용을 언급 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그러나 핵심 PCE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낮아졌다는 점은 상승 제한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4% 철근도 1.6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3.50	+0.32	-3.13	Dollar Index	97.857	-0.15	+0.59
브렌트유	72.04	-0.15	-2.70	EUR/USD	1.1183	+0.29	-0.66
금	1,281.50	-0.57	+0.31	USD/JPY	111.65	+0.06	-0.26
은	14,933	-1.03	-0.83	GBP/USD	1.2931	+0.12	-0.39
알루미늄	1,828.00	-0.49	-2.09	USD/CHF	1.0197	+0.01	+0.42
전기동	6,396.00	-0.06	-1.24	AUD/USD	0.7055	+0.18	-1.11
아연	2,792.00	+0.87	+0.90	USD/CAD	1.3454	-0.01	+0.80
옥수수	361.75	+0.14	-0.48	USD/BRL	3.9395	+0.19	+0.08
밀	435.25	-1.64	-1.47	USD/CNH	6.7388	-0.03	+0.40
대두	860.75	-0.72	-3.37	USD/KRW	1158.50	-0.22	+1.49
커피	92.65	-1.54	-0.22	USD/KRW NDF 1M	1158.75	+0.09	+1.6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23	+2.52	-6.51	스페인	1.010	-1.10	-5.50
한국	1.866	-0.90	-6.90	포르투갈	1.121	-0.50	-4.20
일본	-0.040	0.00	-0.90	그리스	3.298	+0.90	-0.50
독일	0.003	+2.50	-2.20	이탈리아	2.584	+0.10	-1.70